

# 화순고, 회장기 배드민턴 복식 우승

연서연·안원희 정상에 올라  
같은 팀 김미주·김미소 준우승  
연서연 개인전 준우승도  
화순고 단체전에서선 3위



2022 한국 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에서 선전한 화순고 배드민턴부. <전남도체육회 제공>

화순고등학교 배드민턴부가 전국대회에서 국내 최강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화순고 배드민턴부는 지난 27일부터 5일까지 경남 밀양에서 열린 2022 한국 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여자고등부 복식(1년)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개인단식에서는 준우승, 단체전도 3위에 올랐다. 여자고등부 복식(1년) 결승전에서는 같은 팀 연서연·안원희조와 김미주·김미소조가 맞붙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연서연·안원희 조가 세트스코어 2-1(15-21, 21-12, 21-7)로 승리, 우승을 차지했고 김미주·김미소조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복식우승을 차지한 연서연은 개인단식 준결승에서 신비(김천여고)를 2:1(17-21, 21-18, 21-9)로 꺾고 결승에 진출, 금메달을 노렸다. 하지만, 김도연(대성여고)에게 2세트(21-12, 21-12)를 내리 내주고 준우승을 차지했다.

화순고는 단체전에서 김천여고와 유봉여고를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영덕고에 3-1로 패해 치약고와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박찬웅 화순고 감독은 "힘든 훈련을 묵묵히 잘 따라와준 선수들에 고맙고 몰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학교에도 감사하다"며 "많은 전국대회와 제 103회 전국체육대회가 남아있는 만큼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시교육감기 배구대회 역대 최다 62팀 참가 주목

광주 연고 AI페퍼스 창단 영향, 학교스포츠클럽도 활기



최근 열린 제15회 광주광역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배구중목 여자고등부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보문고, 상무고 학생들이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배구협회 제공>

제15회 광주광역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 대회에 역대 최다 팀이 참가해 주목받고 있다. 광주연고 여자프로배구 AI페퍼스가 창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배구협회 주관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 18개팀(남 9·여 9), 중등부 32개팀(남 17·여 15), 고등부 18개팀(남 9·여 9) 등 총 62개팀이 참가했다. 이는 대회 개최 사상 가장 많은 참가팀이다. 남자초등부 우승은 어등초가 차지했다. 준우승은 송정초, 3위는 농성초, 오치초가 입상했다. 여자초등부에서도 어등초가 우승 영예를 안았다. 어등초는 결승에서 한국배구연맹 유소년 클럽 라이벌인 송정초와 3세트까지 가는 일진일퇴 공방을 벌인 끝에 세트스코어 2-1로 승리했다. 3위는 큰별초와 오치초가 차지했다. 남자 중등부는 신용중이 우승, 용봉중이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3위에는 광산중과 문산중

이 입상했다. 여자중등부는 하남중이 우승했다. 준우승은 장덕중에게 돌아갔다. 3위는 용봉중과 광산중이 나란히 차지했다. 남자고등부에서는 보문고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상무고, 3위는 자동고와 서강고가 차지했다. 여자고등부에선 운남고가 정상에 올랐다. 보문고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상일여고와 문정여고는 공동 3위를 안았다. 각 부별 우승팀은 광주시 대표로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참가한다.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은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에 역대 가장 많은 팀이 참가하고, 학생들이 배구선수를 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밝혀 예전과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달라진 점을 느꼈다"면서 "여자프로배구 AI페퍼스가 광주연고로 창단되면서 배구를 통해 꿈을 실현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미국서 조선대 총장배 태권도대회... 1000여명 참가



LA '태권도의 날' 기념 행사  
미국 LA '태권도의 날' (매년 9월4일)을 기념해 조선대학교 총장배 태권도 대회(사진)가 열렸다. 조선대학교는 지난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2022 조선대학교 총장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태권도 위원회(위원장 김진섭 조선

대학교 대학협력외교교수)가 주관하는 이날 대회는 품새(개인, 3:3, 단체)와 겨루기(개인, 3:3, 단체), 격파 등 세 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총 1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대회가 끝난 후에는 조선대 총장의 이름으로 상장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미주지역 교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개교 76주년을 맞은 조선대학교를 알리고 대회 개최를 통해 미주지역 해외 동문회를 결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시청 김국영 10초 16 대회신 강다슬과 또한번 100m 동반우승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김국영 막판 스퍼트 돋보여  
강다슬 독주 끝 여유롭게 우승

김국영(31)과 강다슬(30·이상 광주시청)이 한국 육상 남녀 100m 최강자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들의 남녀 100m 동반 우승은 지난 3월 제26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4월 제51회 전국중부육상경기선수권대회, 5월 2022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최근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에 이어 올시즌 다섯번째다. 김국영은 6일 경상북도 예천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33회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남자 일반부 100m 결선에서 10초16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예선에서 10초36을 기록했던 김국영은 결승에서 대회신기록(이전 10초34)을 경신하며 한국 간판 스프린터로서의 위치를 과시했다. 출발은 김태호(29·파주시청)가 빨랐다. 김태호는 70m 지점까지도 레이스를 주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러나 김국영이 막판 스퍼트로 결승선 앞에서 역전에 성공했다. 김태호는 10초23으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10초40에 달린 최창희(23·안산시청)가 차지했다. 여자부 결선에서는 강다슬이 11초86으로 정상에 올랐다. 강다슬은 레이스 초반부터 독주했고, 여유 있게 우승했다. 한정미(26)는 여자부 400m 결승에서 56초81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예선에서 58초14를 기록한 한정미는 결승에서 이지는(전북개발공사·56초26)에 이어 두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은메달을 확정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태풍으로 인해 경기시간이 바뀌고 레이스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태풍이 일찍 빠져나가면서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면서 "기록은 만족할 수준이 아니지만 한 달여 남은 전국체전을 위해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해머던지기 여자부에서는 목포시청 박서진(29)이 우승했다. 박서진은 58m67을 기록, 김휘수(음성군청·54m92), 정다운(익산시청·54m45)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국 근대5종, 세계유소년선수권 남녀 제주 동메달

한국 근대5종 유망주들이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에서 남녀 제주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예나(전북체고)와 신수민(서울체고)은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나노에서 열린 2022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 U-19 여자 계주 경기에서 육상, 사격, 수영, 펜싱 등 4개 종목 합계 971점을 얻어 이집트(989점), 영국(979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는 근대5종 중 승마를 제외한 육상·사격·수영·펜싱 4종목을 치르는 U-19 부문과 육상·사격·수영 3종목을 U-17 부문으로 나눠 열리는 유소년급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다. 김예나·신수민은 펜싱 7위, 수영 11위로 메달권과 다소 거리가 있었으나 마지막 레이저 런(육상+사격) 경기에서 전체 1위에 오르며 입상에 성공했다. 한국은 11일까지 이어지는 U-19 개인전 등에서도 메달을 노린다. /연립뉴스

###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공조2: 인터내셔널, 리미트
- 2관 공조2: 인터내셔널
- 3관 블랙폰, 헌트
- 4관 육사오(6/45)
- 5관 공조2: 인터내셔널
- 6관 공조2: 인터내셔널, 주라기캡스 극장판: 공룡시대 대모험
- 9관 공조2: 인터내셔널
- 7관 씨네캐머 육사오(6/45), 한산: 용의 출현
- 8관 씨네캐머 육사오(6/45), 헌트, 탐건: 매버릭, DC 리그 오브 슈퍼-펫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국악원악단 제131회 정기연주회  
**환경음악회 - 초록빛생기**  
일시: 2022. 9. 15.(목) 19:30  
장소: 빛고을 시민 문화관  
문의: 062-415-5403

광주시립국악단 제19회 정기공연  
**한여름 밤의 꿈**  
일시/장소: 2022. 9. 15.-17./9. 22.-24. (목-토) 19:30  
생일공원 야외무대  
2022. 9. 30.-10. 4. (금-화)  
광주문화예술회관 잔디광장  
문의: 062-511-2759